



# 화려하고 다양한 식생 ‘자연의 진언’



선암사 숲길.



등골나무.



붉나무꽃.



뿔잠자리.



싸리꽃.

순천은 호남정맥이 남해에 이르러 머문 곳이다. 특히 총면적의 70%가 산지로 되어있는 옛 승주장은 남도에서 가장 깊은 산간이다. 월출산, 무등산 등과 함께 호남의 3대 명산의 하나인 조계산(884m)이 그 산간에 우뚝하다. 그 산 동쪽 기슭에 선암사(仙巖寺)가 있고, 서쪽 기슭에 송광사(松廣寺)가 있다.

조계산(曹溪山)이라는 지명은 고려 보조 국사 지눌이 송광사에서 선봉을 드날리면서 새로 지어진 이름이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선암사에 화제가 잦아, 이를 산강수약(山強水弱)한 지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한때 이름자에 물 ‘水’자가 들쭉이나 들어간 원래 이름인 ‘청량산(淸涼山)’이라 부르기도 했다.

선암사는 진평왕 3년(542년)에 아도 화상이 비로암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했다고 한다. 진평왕 때라던 신라통일 전이니 백제 성왕 때라고 해야 바르다.

선암사 모니터링 구간은 사하촌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구간, 경내 구간, 큰절에서 운수암에 이르는 구간, 큰절에서 대각암에 이르는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사찰 주변의 조류들은 숲속보다도 사하촌 주변에서 더 다양하게 관찰된다. 사하촌에 들어서자 봄에 날아드는 여름 철새이자 맹금류에 속하는 새올리기 한 마리가 촛살같이 지나가고, 어디선가 찌르레기 소리가 들린다.

조계산에는 60여종의 새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서들은 기록하고 있다. 특정종으로는 붉은배새매, 소쩍새, 새올리기, 족독새, 청호반새, 물레새, 물까마귀 등이 있다.

사하촌을 지나면 선암사까지는 1km 남짓한 휴길이다. 비가 온 다음이라 군데군데 패였지만, 포장길보다 훨씬 생태적일 것이다.

숲길 왼쪽으로는 계곡이다. 선암사 계곡은 상사호로 들어가는 선암사천의 상류지역이다. 수질이 양호해서 선암사 영역에서는 갈겨니, 버들치, 돌고기 등이 관찰되었다.

승선교(昇仙橋)는 계류의 바닥에 있는 암반을 초석으로 하여 돌을 무지개꼴로 쌓았다. 무지개다리를 홍교(虹橋)라고 하는데, ‘虹’자는 자벌레가 기어갈 때 허리를 구부린 모양에서 따온 것이다.

삼인당(三印堂)은 연못 안에 섬을 띄운 접이나 숲그늘 속에 자리한 것을 미루어서 애초에 영지(影池)보다는 연지(蓮池) 성격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법인(三法印)은 천길 물속보다 깊

고 오묘하지만, 이 연못이 만드는 생태계 또한 무량하다. 산에서 내려와 작은 폭포로 떨어지는 물은 유기물을 연못으로 실어 나르고, 그 유기물을 수많은 미생물이 분해하고, 미생물 분해과정에서 생긴 질소나 인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여 살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연못 속의 수서곤충과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니 생태계의 인드라망이 따로 없다.

선암사의 화합은 장군봉에서 동서로 흐르는 계곡을 감싸 안은 남향이다. 지세는 비교적 넓고 경사진 산자락이다. 선암사 공간 배치의 미덕은 깊고 그윽함에 있다. 각 전각들은 대웅전의 부속건물이 아니라 높고 낮은 석단 위에 저마다 크고 작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

선암사 각 영역의 전각들 사이에는 골목 같은 고살길이 그물처럼 이어져 있어서 마치 한옥마을에 들어온 느낌을 준다. 각 영역의 조경들도 왕십의 원찰에 걸맞게 화려하고 식생도 다양하다. ‘사찰 내내 꽃이 지지 않는 절’이라는 말이 공치사만은 아니다.

선암사에는 80여 종의 조경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기록에 담아볼 만한 것들로는 무우전 담장에 늘어선 600년 된 매화나무들, 선불전 옆의 와송, 칠전선원 주변의 영산홍과 자산홍, 장경각 앞 측백나무, 종무소 주변의 처진뽕나무 등이 있다.

남도의 따뜻한 기후 덕분에 다른 절에서 보기 힘든 난대수종들도 경내에 제법 있다. 금식나무, 아왜나무, 은목서, 남천, 동백, 남경도, 무화과, 팔손이, 유카... 금식나무는 소금끼가 미치는 해안지방이나 섬에 자라는 난대상록수이다. 높이는 3m 안팎으로 자라고, 잎은 타원형으로 마주난다.

장경각 앞 측백나무는 사찰에 심어진 측백 가운데 가장 우람한 모습을 자랑한다. 회갈색의 줄기에서 관목처럼 많은 가지가 뻗어 나오고, 그 가지에 비늘잎이 무성하게 돋는다.

선암사 경내에는 연못도 많고, 샘물도 많다. 달마전의 다조(捺槽), 삼성각 앞 방지(防池), 칠전당 옆 쌍지(雙池), 일주문 옆 지원(池苑), 그리고 삼인당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든 물을 마시고 손을 씻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물 뿐인가. 어디를 걸어 가든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다. 눈에 보이는 조경보다 물소리 새소리 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경이 더 깊고 그윽하다. 유난히 화마의 장난이 잦았던 선암사, 사시사철 들리는 물소리는



대각암 연못.

## 특정종인 붉은배새매 등 60여 종의 새들 서식 무우전 600년 된 매화나무 기록에 담아들 만 차밭 방화벽 기능...대각암 연못 자연성 뛰어난

화마(火魔)를 범접치 못하는 자연의 진언(眞言)이 아니겠는가.

사찰 푸른 차나무도 염연한 난대수종이다. 선암사 차밭은 일주문 앞과 절 뒤에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뒷밭이 훨씬 넓다. 선암사 차밭은 산불이 경내로 옮겨오는 것을 차단하는 방화벽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이를 내화수림대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차밭 뒤로 등부도와 북부도가 자리하고 있다. 선암사 가을꽃들은 이 지역에서 많이 관찰된다. 은평의다리, 등골나무, 잔대, 열가지, 참취, 짚신나물, 머느리뽕풀, 벌개미취, 고려영경취, 곰취, 오이풀, 산박하, 마타리, 단풍취, 까실썩부쟁이, 측부쟁이, 왕고들빼기, 진득찰, 미

역취, 맥문동, 쇠무릎, 도둑놈의갈고리 등이 관찰되었다.

은평의다리는 한국특산식물로서 중부이상 산속에 분포한다. 키는 50cm 안팎, 줄기에 드문드문 마디가 있고, 잎은 어긋나게 달린다. 꽃은 늦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서 연분홍 핀다.

등골나무는 가을 전령사이다. 여러해살이 국화과 초본으로, 전체에 가는 털이 있다. 줄기는 70cm 정도로 곧게 서고, 줄기 끝에 회거나 자주빛이 도는 꽃이 자잘하니 모여서 핀다. 봄에 어린순을 나물로 무쳐먹는다.

싸리는 1970년대 우리 산을 푸르게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절에서 생울타리용으로 심으면 고색(古色)에 어울리

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숲속의 부도나 무덤 주변은 숲이 없어서 양명하다. 그늘진 숲속보다는 초본들도 다양하고, 햇볕을 좋아하는 곤충들도 많이 모인다. 선암사 주변에서는 절 주변, 대각암 주변, 등부도전과 서부도전 주변 등에서 많이 관찰된다.

애기세죽나비는 이름 그대로 몸집이 작은 편이다. 흑갈색 날개에 흰색의 띠줄이 3개 있다. 남한 전역, 주로 물이 가까운 숲 가장자리에서 자주 관찰된다.

뽕잠자리는 긴 더듬이가 뽕같이 보여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날개의 길이가 7cm 안팎이며, 몸통에 황색의 띠무늬가 넓게 나 있다. 날개는 투명하고 길다.

차밭 옆으로 27기의 중수비가 준수한 용모를 자랑하고 있다. 중수비 앞길로 인적 드문 호젓한 숲길이 폭포로 이어져 있어서 기암 스님들이 포행에 나서기도 한다.

선암사의 해우소도 볼거리이다. 용변 후에 낙엽이나 톱밥 같은 매질(糞質)을 뿌려서 풍을 건비(健肥)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유기농을 했다. 얼마 전에 수세식 화장실을 지었다. 깨끗하지만, 일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일 내내 환풍기를 돌려야 하고, 삼중 내내 단방기를 돌려야 하니,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각암으로 가다보면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조성한 편백과 삼나무들이 상록수림을 만들고 있다. 선암사 주변엔 편백과 삼나무 식재량이 많은데, 수령은 50년 안팎이다. 이들 군락에는 조릿대, 진달래, 산딸기, 작살나무, 쥐뚫나무와 같은 키 작은 목본들이 함께 살고 있다.

대각암 옆에 자연성이 뛰어난 연못이 있다. 개구리 같은 양서류를 비롯해 다양한 수서곤충들이 저들의 세상을 이루고 있다. 폐기와 낮은 담을 쌓은 것도 운치를 더해준다.

복암이라고도 하는 운수암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이다. 이 구간 역시 활엽수가 주종을 이룬다. 선암사에서 정상인 장군봉에 이르는 구간에는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털조장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때마침 붉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다.

열매 표면에 잔 털이 나는 분이 피기 때문에 ‘염부목(鹽膚木)’이라고도 불리는 붉나무에는 오메자(五倍子)라는 벌레혹이 달리는데, 타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절에서는 상처 치료 약재로도 썼다.

선암사에서 송광사로 넘어가려면 삼인당 앞 선각담 옆길로 오른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cafe.daum.net/templeeco](http://cafe.daum.net/templeeco)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경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 아름다운 등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촉접등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찬덕연등에 사용된 케이블은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법문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청사초롱

LED 인등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 [www.chanduk.com](http://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